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70(통79). 피난처 있으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주님, 점점 밤이 길어지고 날이 차가워지는 가운데, 빛이요 생명의 온기가 되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 갇들어 있는 어두움과 냉랭함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의 영혼을 밝고 맑게 하여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멸망의 절벽을 코앞에 두고도 욕망의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더 두려워 한다는 생각, 나보다는 남들이 더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어머니 지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꾸짖어 주시고, 희생과 섬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2:14 인도자

♠ 교 독 문 118. 구주강림(4)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황경순 집사 II.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8. 예수님 오소서 다함께

성경봉독 I. 눅19:1-10 고정환 학생

..... II. 마2:1-10 김진경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아픔의 나눔 김재홍 목사

..... II. 별을 낳는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116. 동방에서 박사들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릇된 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다 함 께 :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는 이유로 진리를 굳건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 진리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언젠가 진리가 온 세상에 우뚝 서는 날을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탄축하의 밤
복되도다 형제자매의 사경!	주관 : 교회학교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이명희 집사	김제우 학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이성범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송동준 조관행 장혜숙 이영란 홍선희
	헌금위원	한상익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거룩한 밤”을 거닐다 - 독일의 대림절과 성탄절 II

꽤 개인적인 인상이긴 하지만 나에게 대림절-성탄절-송구영신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축제 기간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다가온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시(詩)들이었다. 실제로 이 기간에 독일의 예배당을 찾으면 이런 저런 소식지에 짝막하게 소개된 경건한 ‘말’[言]의 ‘성소’[寺]와 조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 형상이 상실되었기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이 밤에 나셨다.”(안드레아스 그뤼피우스) “그리스도께서 수천 번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네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영원한 방랑자다.”(요한 세플러) “인간의 가장 위대한 노력과 성과를 부끄럽게 하려는 듯이 여기 한 아이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이도다.”(디트리히 본회퍼) 이런 명상의 말씀은 삭막한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향한 발돋움을 일으키는 언어들이었다. 대림절 기간 틈틈이 예배당에 들어가 이런 시와 만나 눈을 감고 머리를 끄덕이며 기도하다 일어서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 대림절이나 성탄절과 관련된 송년 모임에 가보더라도 먹을 것과 놀 것과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시인의 시나 간단한 이야기를 낭송하는 시간이 꼭 있다. 고요함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언어의 멋과 맛을 음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없을지라도 어떤 감동적인 글귀를 들고 무대 위에 올라와 그걸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자신의 감흥을 나누는 사람도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성탄절 시장으로, 대림절 달력으로, 대림절 화환의 촛불로, 화사한 장식과 쇼핑으로 시의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축제보다 영혼 깊은 곳의 축제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 주옥같은 찬송시가 그들에게 주는 감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밤을 거닐면서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겠지만, 수백 년을 전해 내려오면서 독일인의 정서에 언제나 깊은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찬

송을 부를 수 없다면 마음이 웬지 허전할 것이다. 마르틴 루터, 다니엘 주더만, 요한 클레퍼 등이 쓴 노래도 매력적이지만, 요즘 독일 교회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들은 17세기 독일의 목사이며 시인이었던 파울 게르하르트(Paul Gerhardt 1607-1676)의 노래다. 예수께서 낚이신 성탄의 말구유를 보며, 마음으로 그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 “나 여기 당신의 구유 곁에 섰나이다!”(Ich stehe an deiner Krippe hier)는 1653년 파울 게르하르트가 쓰고 1736년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가 곡을 붙인 노래다. 이 노래의 처음 1, 2절과 마지막 9절을 나지막이 읽어본다.

나 여기 당신의 구유 곁에 섰나이다
오 예수 나의 생명이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 여기 당신께 가져와 드리나이다
받으소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
이 모든 것 받으사 당신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나 아직 태어나기도 전
당신은 나를 위해 나셨고
나 당신 알기도 전
당신이 나를 당신의 것 삼으셨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기도 전
당신이 나의 것 되실 것을 고이 생각하셨나이다

내 구주여, 원컨대 한 가지 내 소원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당신을 영원히 내 안에
내 곁에, 내 가까이 모시는 것
하여 나로 당신의 구유 되게 하소서
오소서, 오셔서 내 안에
당신과 당신의 모든 기쁨을 낚이소서

아름다운 사람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눈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 이는 사람이여라

세찬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위에 하나이 우뚝 서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올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 김민기의 노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박애순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권호천
 안정숙 임주빈 최현옥 전월수 조현권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손성윤 이광용 형인순 임창선

월정헌금:

고속이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송임희 이유선 방극숙 이은자 전영자
 이정은 조순덕 배부례 김용태 박정숙

감사헌금:

우순덕 하재두 한완식 문금석 김성한 조영순 김종철 박애순 이계순
 이소순 권현숙 이성범 김혜영 이은자 이우엘 전성오 정복순 임승동
 백혜숙 김승일 김경선 무명8

녹색꿈 헌금:

박민선 박애순 최경미 김중수 이순정 장재영 이나단 이우엘

생일감사헌금:

송양진 박성실 조관행 홍선희 강미선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섬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아겠습니다.
2. **새교우환영회** : 오늘 2부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2009년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열립니다.
3. **성탄축하의 밤** : 23일(수) 저녁 7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성탄축하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4. **성탄감사예배** : 25일(금) 오전 11시 성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5. **세례입교식** : 25일, 성탄감사예배 전 오전 10시 40분에 세례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일찍 오셔서 세례 받고 입교하는 이들을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함께하는성탄절예배** : '2009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 가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산참사 남일당 현장에서 열립니다.
7.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월례 예수포럼이 21일(월) 저녁 6시에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8. **설거지 신청** : 2010년 주방 설거지 봉사자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한 주에 3명이며 한 분이 5회 이하로 신청해주시시오.
9. **신앙실천** :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 떡 : 능동교회 (이정복 목사)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다음 주 : 나사렛 속)

* 설거지 봉사 : 방문성 오재환 (다음 주 : 한상의 이준하)

새교우 소개

이진희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